

7년만에 핀 꽃... 고영창이 보여준 희망

프로데뷔 첫 풀타임 시즌 소화
필살기 투심으로 필승조 활약
55경기 3.50 방어율...승·홀드 등 첫 기록

KIA 투수조 조장 맡아 완벽 팀워크
양현종 중심 문경찬·박준표 등 '끈끈'
선외의 경쟁 통해 성장...마운드 재건 발판

이민우·이준영·김기훈 선발 도전
"2020시즌, 더 막강한 마운드 될 것"

"마무리 캠프, 스프링캠프 잘 이겨내서 올해보다 내년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수들이 되자."
잇을 수 없는 2019시즌을 보낸 KIA 타이거즈 투수 고영창이 더 발전한 2020시즌을 그린다.
고영창에게 올해는 잇을 수 없는 특별한 시즌이 됐다. 지난 2013년 연세대를 졸업하고 프로에 뛰어들던 그는 7년 차에 처음 풀타임 시즌에 성공했다.
55경기에 나온 그는 3.50의 평균자책점으로 1승 3패 1세이브 10홀드를 기록했다. 승, 홀드, 세이브 모두 자신의 첫 기록이다.
좌완 임기준과 교대로 마운드에 오르면서 '동생'과 함께 팀의 마운드를 지키고 싶다는 꿈도 이뤘다. 임기준은 그의 사촌 동생이다.
무엇보다 고영창은 올 시즌 KIA의 투수조 조장을 맡아 '젊은 마운드'를 이끄는 한 축이 됐다.
KIA의 젊은 투수진은 올 시즌 완벽한 팀워크와 뛰어난 실력을 과시하면서 마운드 안팎에서 박수를 받았다.
'젊은 마운드'는 시름 많았던 올 시즌 KIA 팬들을 웃게 한 희망이었다.
고영창은 조장으로 투수들을 이끌었지만 "내가 딱히 한 게 없다"며 후배들에게 공을 돌렸다.

그는 "애들이 워낙 다 어리고, 알아서 다 자기 할 것하고 선배들 잘 챙겼다"며 "특히 (박준표, 문경찬, 이민우, 이준영) 92라인들이 굉장히 잘 됐다. 92 동기들이 술선수법해서 잘한 것 같다. 조장으로 딱히 할 게 없어서 편하게 내 할 일을 했다"고 언급했다.
팀을 대표하는 '에이스'이자 투수 최고참이었던 양현종도 고영창에게는 든든한 힘이였다.
고영창은 "현종이 형이 워낙 후배들 잘 챙기고, 후배들이 현종이 형 많이 따르고 하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선배로서 역할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오랜 무명의 시간을 뒤로한 고영창은 시즌 초반 특유의 '투심'으로 필승조로 활약을 했다.
또 다른 투수들에 가려져 있던 문경찬은 리그에서도 손에 꼽는 마무리가 되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힛든 시간을 버티고 영광의 순간을 맞은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투수들의 2019시즌은 각별하다.
고영창은 "2군에서 힛든 세월을 많이 같이 해왔던 애들이라 서로 잘하라는 마음이 많았다. 제가 잘하면 좋겠지만 후배들이 잘해도 좋은 것 같다. 힛든 세월 같이 버텨왔고 같이 해오다 보니까 서로 응원하는 분위기였다"며 "특히 민우가 마지막 게임에 잘 던져서 좋았다. 민우, (이)준영 이런 애들이 많이 힘들어 했는데 잘 되니까 좋았다"고 이야기했다.
또 "불펜들 엄청 다 잘해줬다고 생각한다. 경찬이도 마무리로서 중간에 합류했는데도 힛든 고비도 있었지만 잘 해왔고 (진)상현이 준표 다 이렇게 잘해줬다"며 "(하)준영이나 저 같은 경우 초반에 잘해오다가 후반기에 안 좋았는데 내년 시즌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올 시즌 KIA 투수들은 끈끈한 팀워크 속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펼치면서 함께 성장했다. 경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상현이 '0'의 9월을 보내며 마무리 경쟁에 뛰어들었고, 마지막 선발 등판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이민우와 이준영 그리고 전천후 투수로 활약한 박준표가 선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마무리캠프를 시작으로 스프링캠프까지 고영창을 중심으로 '젊은 마운드' 선외의 경쟁은 뜨겁게 전개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이제 FA 시장 등판

다저스, 챔피언십시리즈 진출 좌절
공식 자유계약선수 자격 얻어
올 14승 5패 방어율 2.32 최고 성적
美 언론 'FA 대박' 놓고 의견 분분

LA 다저스의 류현진(32)이 FA(자유계약) 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다. 2013년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처음이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10일 끝난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 5차전에서 3-7로 졌다. 시리즈 전적 2승 3패로 밀린 다저스는 NLCS 진출권을 워싱턴에 내줬다.
팀이 포스트시즌에서 탈락하면서 류현진은 공식적으로 자유계약 선수가 됐다.
현지 반응은 'FA 대박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과 '성적보다 낮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며 엇갈린다.
류현진은 동산고 재학 시절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뒤에는 어깨 수술을 받았다. 이 밖에도 어깨 염증, 엉덩이 염좌, 팔꿈치 염증, 사타구니 근육 손상 등

매년 크고 작은 부상으로 고생했다.
대부 후 최고의 성적을 기록한 올 시즌에도 지난 4월 왼쪽 사타구니 문제로 10일 동안 부상자 명단에 올랐고, 시즌 막판엔 체력 문제로 부진했다.
류현진이 높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성적과 올해 FA 시장 움직임에 근거로 삼는다.
류현진은 올 시즌 14승 5패 평균자책점 2.32의 최고 성적을 올렸다. 내셔널리그 평균자책점 1위를 기록했고, 소화한 이닝도 182.2이닝으로 나쁘지 않다.
FA시장도 차갑게 얼어붙진 않을 전망이다. 내년 1, 2선발급 우수한 투수가 필요한 구단이 적지 않다.
빅마켓인 뉴욕 양키스를 비롯해 추신수의 소속 팀 텍사스 레인저스,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등이 지갑을 열 가능성이 크다. 현 소속팀 다저스도 월드시리즈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이고 류현진의 티켓 파워를 무시할 수 없다.
일단 류현진은 휴식을 취한 뒤 구단들의 러브콜을 기다릴 생각이다. 내년이면 만 33세가 되는 류현진은 FA 총액보다 기간에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김연경 16점...엑자시바시, 터키 슈퍼컵 2연속 우승

'배구 여제' 김연경(31·엑자시바시)이 터키 여자배구 정규리그 개막을 앞둔 슈퍼컵에서 바키프방크 상대 설욕과 팀 우승에 앞장섰다.
김연경은 10일(이하 한국시간) 터키 이즈미르에서 열린 바키프방크와 슈퍼컵에서 16점을 뽑으며 3-2(25-14 25-21 25-20 20-25 15-11) 승리를 이끌었다.
이로써 엑자시바시는 올해 5월 챔피언에서 2승 3패로 우승컵을 내줬던 바키프방크에 5개월 만에 설욕하며 슈퍼컵 2년 연속 우승 기쁨을 누렸다.
슈퍼컵은 지난 시즌 터키컵 챔피언과 리그 챔피언 우승팀이 맞붙는데, 엑자시바시는 터키컵 챔피언 자격으로 리그 우승팀 바키프방크와 맞붙었다.

김연경은 다가오는 2019-2020시즌을 앞두고 새롭게 팀의 주장을 맡아 공격을 주도했다.
김연경은 티아나 보스코비치와 '좌우 쌍포'로 첫 세트 공격을 주도하며 기선 제압에 앞장섰다.
폴세트 대결을 펼친 3세트를 25-27로 내줬고 4세트마저 저 승부는 최종 5세트로 넘어갔다.
하지만 엑자시바시는 보스코비치의 호쾌한 스파이크 쇼와 김연경의 막판 활약을 앞세워 5세트를 15-11로 이기며 슈퍼컵 우승을 확정했다.
슈퍼컵 우승 기쁨을 누리 김연경은 12일 오후 10시 베일릭듀즈와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정규리그 레이스를 시작한다. /연합뉴스



김연경